

■ 4·9 총선 광주·전남 당선자 분석

관료 출신 50대 주축…여성은 없어

18대 총선에서 승리한 광주·전남지역 당선자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고시를 통해 관료를 지낸 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균 20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당선자 20명 중 10명만 현역의원으로 교체율이 50%에 달했으며 5명은 재입성, 5명은 첫 국회 진출의 영광을 누렸다.

전국 245개 지역구 가운데 여성 당선자가 14명(5.7%)이나 되며 16대 6석, 17대 10석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 광주·전남에서는 17대에 이어 이번에도 여성 당선자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연령=광주·전남지역 당선자의 평균 연령은 55.6세였으며 50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가 4명, 40대는 3명이었다. 최연소 당선자는 43세의 강기정 의원,

현역의원 교체율 50%…5명은 초선

재산 19억8천만원 전국 평균보다 많아

최고령 당선자는 69세의 박상천 민주당 대표였다.

전국적으로도 지역구 당선자의 평균 연령은 53.2세로 17대 당시 51세보다 다소 높았다. 부산 금정에서 금배지를 거머쥔 고 김진재 의원의 아들인 김세연(35)씨가 최연소 당선자로 기록됐으며 5선 고지를 달성한 자유선진당 이용희(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은 76세로 최고령 기록을 세웠다.

◇출신 학교 및 직업=출신 학교 별로는 서울대 8명을 포함, 수도권 대학 출신이 15명으로 4분의 3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전남대 4명, 경남대 1명으로 채워졌다. 서울대 중에는 법대 출신이 6명이나 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당선자는 78억2천67만2천원을 신고한 김효

석 의원이었으며 조영택(42억498만4천원) 전 국무조정실장이 뒤를 이었다. 강기정 의원은 2억2천1886만7천원을 신고, 가장 적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0억원대 미만은 3명에 불과한 반면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당선자는 7명이나 됐다.

전국 지역구 당선자 중 20억원대 이상 재산을 보유한 당선자는 모두 86명이었고, 50억원대 이상 '자산가'도 26명에 달했다. '현대가(家)'의 일원인 한나라당 정봉준 당선자(동작)가 36·6천43억8천여만원으로 드로인적인 1위에 올랐다.

◇병역=20명의 당선자 중 군 복무 만기 전역자는 9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장기 대기에 의한 소집면제 2명, 의병 제대 2명, 소집해제 5명 등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민주당 광주지역 당선자들은 10일 5·18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선거를 통해 보여준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 한나라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치경기자 jkwi@kwangju.co.kr

“한나라 독선·독주 막겠다”

민주당 광주 당선자 합동 회견

를 살리는 힘있는 견제 야당의 역할을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광주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차질없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사업 추진 ▲하계U대회 광주 유치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첨단단지 R&D 특구 지정 ▲일자리 창출 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상당수 다선의원…정치 영향력 확대 기대

4·9 총선 결과 광주·전남지역에 서 과거 어느 선거보다 다선 의원이 대거 배출됨으로써 중앙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총선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박상천(고흥·보성) 민주당 대표와 김영진 전 농림부부장관이 재기에게 성공하면서 5선 의원이 됐다. 또 김효석(담양·곡성·구례), 이낙연(영광·함평·장성), 김성곤(여수갑), 김재균(광주 북을), 이용섭(광산을),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이윤석(무안·신안), 김영록(해남·완도·

명이 3선 반열에 올랐다.

이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한화갑(무안·신안) 전 민주당 대표가 4선, 정동래(광주서을) 의원이 3선 의원이 된 것과는 크게 다른 결과다.

반면 초선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17대 총선에서는 탄핵 둘째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전체 의원 20명의 60%인 12명이 당선됐으나 이번 18대 총선에서는 조영택(광주 서갑), 김재균(광주 북을), 이용섭(광산을),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이

윤석(무안·신안) 후보 등 5명만이 초선 의원이 됐다.

재선 의원은 17대 총선에서는 6

명이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9명이 나왔다.

때문에 벌써 5선 및 3선 의원들 사이에는 이번 총선 후 치러질 전당 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에 도전해야 한다' '원내대표를 노려야 한다' '국회부의장이나 상임위원회장을 맡은 것이 낫다'는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 무소속 6인 민주 복당 ‘시간 문제’

4·9 총선 결과 호남지역 무소속 당선자 6명은 통합민주당으로 복당할 수 있을까.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기적인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나라당에 맞서 격차 세력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의석 한석이라도 아쉽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호남지역 무소속 당선자들은 박지원(목포시), 이

진도), 강운태(광주 남구), 이무영(전주 완산갑), 유성엽(정읍) 등 모두 6명. 이들은 이미 선거 전부터 직·간접적으로 복당의사를 밝혀왔다. 박지원·강운태 당선자의 경우 유세 과정이나 각종 기자회견에서도 “당선되면 복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운태 전 내무부장관은 “민주당의 정체성이 나와 맞다. 당선되면 복당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민주당에 유력하다.

민주당도 총선 참패로 한 석이라도 아쉬운 상황인 만큼 복당을 거절할 이유는 없다.

다만 총선 패배로 당 체계정비가 우선인데다 계파간 역학관계가 얹혀 있는 상황에서 공천과정에서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만큼 낙선 후보 등 다른 당원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간. 지역 정치권에서는 6월 말이나 7월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이후 복당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두 자릿수 득표 성과…당 최고위원 도전”

낙선 정용화 한나라당 정책위 기획위원

말했다.

정 위원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나도 놀랐다. 정말 부족하고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호남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남해안신벨트 사업 등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의 통로 역할을 할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 또 다시 호남이 뒤쳐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당내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내영교 육학 개강 5월 2일

교사 양성시험 플랫폼 앞으니 가? 국내영교육학자 자랑스럽게 참여드려겠습니다.



고밝혔다.
정 위원은 선거 과정에서 격은 광주지역 선거 기류와 관련, “당선보다는 ‘호남도 변해야 한다’는 호소를 하려고 선거운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변화 움직임을 느꼈다”면서 “20여년만에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린 만큼 개인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공인증개시 전문학원

전국 수석 2명 대회 현대한상·최우수상

개강 매월초

합격

국비무료

내총 행정고시학원

서구 010-3111-8111
목포 062-229-8111

합격률 전국 1위 공인증개시 오전반 야간반 4월 첫진도 시작반

제작자 수장자 원과정

수강료 50%

한급과정

한재상당점수증

현대식 학습시설

첨단학습보조 시스템

과학적 평가시스템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전남원) 236-2467~8
고객무료전화 080-0236-2458